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7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올버햄프턴과의 경기에서 선제골에 이어 팀의 2-1 승리를 확정짓는 결승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반 45분 선제골·인저리 타임 결승골... 박지성, 마지막 순간 영웅됐다

시즌 3·4호골, 안방에서 고전하던 맨유 구해... 이청용도 AS추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정규리그 마수결이 골을 포함해 혼자 두 골을 몰아넣으며 맨유의 극적인 승리를 이끌었다.

박지성은 7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10-2011시즌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올버햄프턴과 홈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면서 0-0으로 맞선 전반 45분 선제골에 이어 1-1로 비긴 채 끝날 듯하던 경기 종료 직전 결승골까지 뽑아 맨유에 짜릿한 2-1 승리를 안겼다.

박지성이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골 맛을 본 것은 처음이다. 박지성은 리그 컵대회인 칼링컵에서만 2골을 기록 중이었을 뿐 정규리그에서는 4경기에 출전해 득점이 없었다.

이날 득점으로 박지성의 올 시즌 공격 포인트는 칼링컵 2골 2도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도움을 포함해 4골 3도움으로 늘었다.

최근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 속에서 맨유의 버팀목 구실을 해온 박지성은 전반 14분과 15분 잇따라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과감하게 오른발슛을 시도하는 등 몰놀림이 가벼워 보였다.

전반 26분 올버햄프턴 네나드 밀리야스의 슈팅이 중앙수비수 네마나 비디치의 발에 맞고 자책골이 될 뻔한 위기를 넘긴 맨유는 전반 45분 박지성의 한 방으로 균형을 무너뜨렸다.

대런 플레처가 미드필드 오른쪽에서 골 지역 정면으로 찰려준 공을 박지성이 오른발로 차분하게 차 넣었다.

맨유는 후반 21분 맨유 유스팀 출신인 실뱅 이뱅스-블레이크에게 빠아픈 동점골을 내줬다.

하지만 경기 종료 직전 박지성의 발끝에서 결승골이 터져 나왔다. 박지성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북쪽 치고 들어와 왼발슛으로 올버햄프턴의 골망을 흔들며 맨유의 구세주가 됐다.

이청용(22·볼턴)과 차두리(30)·기성용(21·이상셀틱)도 맹활약을 했다.

이청용은 6일 오후 영국 볼턴의 리복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2011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토트넘 홋스퍼와 홈 경기에서 오른쪽 미드필드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면서 2-0으로 앞선 후반 31분 케빈 데이비스의 패시브로 이어진 페널티킥을 유도해 어시스트를 추가했다. 이청용으로는 올 시즌 네 번째 공격포인트(3골 3도움)다.

차두리와 기성용도 7일 애버딘과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팀의 9-0 대승에 힘을 보탤다. /연합뉴스

지동원, 24년만의 AG 金 해결사로

아시안게임 D-4

24년 만에 금메달을 노리는 축구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8일 북한을 상대로 첫 경기를 갖는다.

이날 오후 5시(한국시간) 중국 광저우 웨슈산 스타디움에서 사전경기로 치러지는 이 게임은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한국 선수단 첫 경기이자 우승후보라고 할 남북 간 첫 대결이라는 의미가 있어 선수단 사기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간판 공격수 박주영이 소속팀 AS모나코의 반대로 이번 대회에 나오지 못할 뻔하다가 하루 만에 다시 출전하게 된 점은 다행이지만 8일 북한과 1차전은 어차피 박주영 없이 치러야 한다.

홍명보 감독은 6일 첫 훈련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박주영의 몸 상태를 봐야 언제 투입할 수 있을

홍명보호 스트라이커 출격
 오늘 오후 북한과 첫 대결

지 결정할 수 있다. 빠르게 2차전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3차전, 16강부터 기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주영의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선수는 대표팀 막내 지동원(19·전남)이다. 지동원은 4일 오키나와 류큐FC와 연습 경기에서 혼자 두 골을 몰아치는 골 감각을 과시했다.

지동원은 "선수들이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스트라이커는 기회에서 골을 많이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자신감을



대표팀 주장 구자철(21·제주)과 북한과 경기에서 나서는 유일한 남아공 대표 출신 김경우(28·광주)가 조율하는 미드필더 라인의 어깨도 더 무거워졌다. 이번 북한은 남아 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선수가 10명이

나 포함돼 사실상 이번 대회에 출전한 각각 대표팀 가운데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상무 불사조 '광주시대' 8년 마감

상무 불사조가 8년간의 광주시대를 마감했다. 2003년 광주를 홈그라운드로 K-리그에 뛰어 들었던 상무 불사조가 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 현대를 상대로 광주 고별전을 치렀다.

2010 정규리그 최종전으로 열린 이날 경기에서 상무는 전반 10분 조용태의 헤딩골로 선취점을 기록하고도 1-2로 역전패를 당했지만, 탈골 째에는 성공했다.

승점 19점으로 동률을 이룬 대구가 전남과의 원정경기에서 1-2로 패하면서 골득실차에서 앞선 상무가 14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이날 경기를 끝으로 상무 불사조의 광주시대가 막을 내렸다. 지난 2003년 광주시와 연고계약

을 맺고 광주에 동지를 둔 상무는 군인팀이라는 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저돌적인 플레이로 축구 열기를 더하며 광주 FC 출범의 기틀이 됐다.

출범 첫해 13승7무24패로 10위를 기록했던 상무는 2004년 6승11무7패로 13개팀 중 8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지난 시즌에도 17득점을 합작한 김병중(전남)·최성국(성남) 쌍포를 앞세워 전반기 1위를 수성하며 K-리그에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시즌 중 전력의 절반 가량이 전역하게 되는 열악한 여건 속에 2005년부터 내리 4년동안 최하위를 기록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약조건속에서도 광주에서 제 2의 축구 인생을

2010 K리그 탈골째 성공
 광주 FC 출범 기틀 다져

연 선수들도 있다. 조재진(감바 오사카)·조원희(수원 삼성)·이동국(전북 현대)·정경호(강원 FC) 등이 상무를 재기의 무대로 삼았다.

올 시즌 전남 유니폼을 입은 김병중도 상무의 주전 공격수로 맹활약하며 오랜 무명 생활을 청산했다. '리틀 마라도나' 최성국은 '기회의 땅' 광주에서 제 2의 전성기를 보내며 조광래호의 부름을 받았다. 한편 마지막까지 전계된 1위 싸움의 승자는 서울이 됐다. 서울은 이날 대전과의 최종전에서 김치우의 결승골에 힘입어 2-1 승리를 거두며 인천과 0-0 무승부를 기록한 제주를 누르고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여자배구, 김철용 감독의 페루에 역전승

세계선수권 2R... 내일 속적 日과 한판 대결

한국 여자배구가 2010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서 김철용 감독이 이끄는 페루에 역전승을 거뒀다.

박삼용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한국은 7일 일본 도쿄 요요기 체육관에서 열린 2라운드(16강) E조 두 번째 경

기에서 황연주(현대건설)와 김연경(일본 JT 마블러스)의 쌍포가 불을 뿜으면서 3-1(24-26 25-15 25-18 25-23)로 역전승을 따냈다.

1라운드에선 성적을 안고 2라운드에 진출한 한국은 이날 승리로 3승 2

패를 작성했다. 2라운드에서는 16팀이 두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펼친다.

김연경은 이날 양팀에서 가장 많은 21점을 올렸고, 황연주는 15점으로 뒤를 받았다.

한국은 8일 하루 휴식을 취한 후 9일 오후 6시45분 일본과 속명의 라이벌 대결을 펼친다. /연합뉴스

moviehelic 영화에 빠지다

경쾌한 연인과 함께!!

cinus

상무점 **클롬버스시네마** **하남점**

1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방가?방가!(12세)	1관 가디언의 전설(3D)전체
2관 경우강호(15세)/참을 수 없는(18세)	2관 부당거래(18세)
3관 부당거래(18세)	3관 심야의FM(18세)
4관 부당거래(18세)	4관 나탈리(18세)
5관 가디언의 전설(3D)전체	5관 방가?방가!(12세)
6관 나탈리(18세)	6관 경우강호(12세)
7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12세)	7관 참을 수 없는(18세)/월스트리트(12세)
8관 하비의마지막로맨스(12세)	8관 부당거래(18세)
9관 심야의FM(18세)	9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12세)/똥장(12세)
10관 월스트리트(12세)/똥장(12세)	10관 하비의마지막로맨스(12세)

항동시랑! 영화시랑! 매일 심야상영/호남최대주자랑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MEGABOX

M관 부당거래(18세)	최고급관
2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12세)	
3관 나탈리(18세)	
4관 심야의FM(18세)	
5관 가디언의 전설(3D)전체	
6관 월스트리트(12세)	
7관 부당거래(18세)	
8관 심야의FM(18세)/방가?방가!(12세)	
9관 부당거래(18세)	
레터스 투 즐리엣(12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자랑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시정정요금 부과

cinus

1관 부당거래(18세)
2관 심야의FM(18세)
3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12세)/참을 수 없는(18세)
4관 나탈리(18세)
5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방가?방가!(12세)
6관 월스트리트(12세)
7관 가디언의 전설(3D)전체

색깔있는 영화상영 • www.cinus.co.kr
세니우스전대3D(4K)상영!!